

지역 소식통

‘고창방문의 해’ 광주 MZ세대 맞춤형 홍보활동

고창군이 지난 18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근지역인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공원에서 찾아가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공원은 유동 인구가 많은 종장로 동명동 거리 중간에 위치하며 MZ세대의 피크닉 명소로도 손꼽힌다.

이번 홍보 활동에서는 △고창 방문의 해 홍보물 배부 △SNS 팔로우 이벤트 △플래트 이벤트 △세계유산도시 고창 퀴즈 이벤트 등 MZ세대를 겨냥한 고창 방문의 해 홍보와 다가오는 한여름밤의 축제 제50주년 고창 묘양성제를 알리는 등 방문객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행사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세계유산도시 고창군의 매력에 빠져 다가오는 가을철 나들이 장소는 고창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매창공원 수목 친환경 병해충방제 추진

부안군은 부안읍 매창공원 조경수에 미국흰불나방 유충이 발생하여 긴급 수목 병해충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영향으로 미국흰불나방 유충의 개체 수가 증가하여 생활권 수목의 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이번 매창공원 수목 친환경 병해충방제는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총 3회차 시행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제품은 식물추출물이 원료인 살충제(제로썬) 및 살균제(싸자바)이며 물에 희석해서 수목 옆면에 살포하는 방식이다.

부안군 산림정원과장은 “이번 매창공원 조경수 병해충방제는 식물추출 성분인 친환경제품을 사용하여 인체에 무해하다, 병해충방제 시 공원이용객, 차량 등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호응 “더 나은 아동 환경 조성 위해 노력할 것”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음악·미술 활용 ‘마음치유, 봄처럼’ 진행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난 5월부터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을 진행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마음치유, 봄처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문제 극복 및 사회적 역할 회복을 위해 문화예술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예술치유 운영단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협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협력시설로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심리치료 연구소)과 함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자살 취약인구의 비율이 높은 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구성했다.

또한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심리치료 연구소)이 20회기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맡았다.

1회차(1~10회기) 프로그램은 2명의 예술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해 수성주공 1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17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음악과 미술 활동으로 참여자들의 우울감과 심리적 스트레스 경감에 도움을 줬

다.

8월 17일부터는 상동 휴먼시아 아파트 프로그램실에서 40~60대의 중장년층 14명을 대상으로 2회차(11~20회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은 집단의 성격에 맞게 특화된 예술심리치유 기법을 제공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시민의 우울 및 자살사고를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담회 실시

고창군이 21일 오후 고창군 한마음 지역아동센터에서 ‘고창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고창군은 2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프로그램비 등에 연간 13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방

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동 간식비, 차량 등등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이들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다하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돌봄교사들에게 항상 감사드리다”며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만큼 논의된 결과를 적극 검토해 더 나은 아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관·전시실 새단장

노후화된 전시패널 등 대폭 개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전북 고창군이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내 전시실을 새단장했다.

홍보관은 1975년에 지어진 옛 신왕초등학교 건물을 사용하여 지난 2014년 4월25일에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전시패널 등을 대폭 개선했다.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프라타주 체임, 대형 모니터를 통한 영상물 상영, 세계기록유산 등재 의미, 고창군과 관련된 3건의 기록물인 무장포고문, 거의록, 취의록 복원을 전시하기 위한 전열장 등이 설치되었다.

현재 무장포고문, 취의록, 거의록은 고창 문화의전당 로비서 전시중이다. 10월 말 홍보관에서 만날 수 있다.

고창군청 오미숙 문화예술과장은 “전시패널 교체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전북 고창군이 고창 동학농민혁명 홍보관 내 전시실을 새단장했다.

명 역사 탐방객에게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볼거리를 추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명 역사 탐방객에게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에 볼거리를 추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제3회 부안컵 격포바다 민어 선상낚시대회 성료

제3회 부안컵 격포바다 민어 선상낚시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지난 20일 격포항과 부안읍바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부안군이 주최하고 (주)한국낚시제철의 주관하에 진행되었으며 총상금 2,500만원을 놓고 200여명의 낚시동호인들이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오전 5시에 출항해 오후 1시까지 8시간 동안 민어 최대어를 놓고 펼쳐진 레이스 속에 우승은 문영주(대전)씨가 민어 84cm를 낚아 50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고 ‘골드피싱2호’는 선상장을 차지해 10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다. 지난해 1~2차 대회에 이어 개최된

이번 3회 대회는 다소 더운 날씨임에도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였고 주말을 맞아 격포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대회로 평가 받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부안은 풍부한 해양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 최적의 장소라며 부안을 낚시를 비롯한 해양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150명 선발 확정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이 지난 18일 재단 이사회를 통해 2023년 장학생 150명을 최종 선발 확정하고 총 3억 16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선발 인원을 지난해 대비 17% 확대해 150명을 선발했다.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장학생은 4년대 117명, 전문대 33명이다. 이들에게는 4년대 220만원, 전문대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2000년 재단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총 2643명의 학생에게 33억 67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정읍장학숙을 건립해 2016년 8월부터 운영하고, 대학교 신입생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학수 이사장은 “지급되는 장학금은 정읍시민들과 멀리 타지에 있는 출향인들이 십시일반 모아 보내주시는 기탁금인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기 바란다”며 “재단에서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으로 장학생 선발 인원을 전년도 대비 17% 확대, 150명을 선발, 2026년까지 2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 프로그램 성료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이사장 허삼권)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0여명을 초청해 허서와~ 정읍은 처음이자!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도시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해 선정된 20명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및 구절초 지방정원, 쌍화차거리를 방문해 정읍의 역사·문화를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설면 꽃두레행복센터와 산내면 오보재, 공미안에서 귀농귀촌 6차 산업 체험활동을 통해 정읍시 귀농귀촌에 대해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도시민은 “귀농귀촌 일련적인 정읍시의 다양



한 귀농귀촌정책을 알고 싶어 참가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정읍을 더 많이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와 귀농귀촌 정보 수집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단기 귀농귀촌 체험활동 및 정읍시 역사·문화탐방을 통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